

CBS가 만든  성경 채널
알림바이블 대본집

Ep.019

파라오를 찾아간 모세

(출애굽기 4:1~7:7)



모세는 여전히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 없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말했죠.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말을 믿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앞에 나타나셨다는 걸
사람들이 믿겠나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니가 지금 들고 있는 게 무엇이냐.”

**“이거 말씀이십니까?
이거야, 양을 돌볼 때 쓰는 지팡이죠.”**

“그렇구나. 그걸 한 번 땅에 던져보겠느냐?”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땅에 지팡이를 던졌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지팡이가 땅에 떨어지자마자
살아있는 뱀으로 변한 거예요!**

**“아잇.. 배..뱀이잖아!
하나님! 뱀이 저한테로 기어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검먹지 말고.
손으로 뱀의 꼬리를 잡아 보거라.”**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놀랍게도
뱀은 다시 지팡이로 변했어.**

**“모세야, 보았느냐?
혹, 백성들이 너의 말을 믿지 않는다면
방금 보여준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주거라
그러면 그들이 믿을 것이니라.”**

모세는 자신감이 조금 생겼어요.
하지만, 여전히 걱정되는 점이 있었죠.

**“하나님 하지만 백성들을 이끄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말을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양치기 목자로 살아와서 말주변이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서는 그런 모세를 보시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모든 걸 해내실 수 있는 분이고
사람의 입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알겠냐, 모세야. 정 그리하다면
너의 형 아론을 너와 함께 하도록 하겠다.
아론은 말솜씨가 뛰어나니
네가 나의 말을 아론에게 전해주면
아론이 백성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침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형 아론과 함께 이집트로 향했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을 그대로 보여주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 드디어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신 모양입니다.
주님, 저희를 구원해 줄
모세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세를 믿게 되었어요

**“위대하신 파라오시여
웬 이스라엘 녀석들이 파라오를 뵈겠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들라하라.”

**모세와 아론이 드디어 파라오 앞에 나아왔어요.
그리고 담대한 목소리로 파라오에게 말했죠.**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러 왔습니다.
파라오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셔서
그들이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파라오는 역시나
예상했던대로였어요.

**“하하하!!! 하나님~?
아니, 하나님이 대체 누구길래
이 파라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게냐.
더 이상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썩 돌아가거라!
이스라엘 녀석들은 한 놈도 보내줄 수가 없다!”**

파라오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모세와 아론이 과심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 많은 양의 일을 시켰죠.

**“이스라엘 녀석들에게
벽돌 굽는 데 필요한 짚을 제공하지 말아라.
허나, 만들어내는 벽돌의 개수는
이전과 똑같아야 할 것이다!
녀석들이 일이 부족하니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둥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느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물을 지을 땐
짚을 이용해서 진흙을 뭉치고
다시 그 진흙을 잘 뭉쳐서 벽돌을 만들 수 있었어요.

이전까지는 진흙을 빚고
벽돌을 굽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고된 일이었는데
이제는 벽돌에 필요한 짚 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구해야 하는 상황이 된거죠!

“전에도 쉬지 않고 일을 했는데
지푸라기까지 직접 구해오라고 하면
벽돌 생산량이 줄어들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평을 하거나 벽돌의 개수가
전보다 줄어들면 이집트의 관리들은
이스라엘인들을 마구 때리고 괴롭혔어요.

전보다 더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게 된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불평을 늘어놓았죠.

“이게 다 모세와 아론 때문이야.
우리를 구해준다고 하더니만 오히려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들었잖아. 썩썩...”

백성들의 불평을 들은 모세는
미안한 마음에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하나님... 대체 왜 저를 이곳에 보내신 겁니까
저 때문에 사람들이 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흑흑흑...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해주신다고 하셨잖습니까...”**

**모세가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자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이제부터 내가 파라오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줄 것이다.
내가 파라오에게 큰 벌을 내릴 것이다.
나의 능력을 보게 되면 파라오는 내 백성들을
자기 땅에서 내보내게 될 것이다.**

**“모세야,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란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모세는 다시 힘을 냈어요.
여전히 백성들은 모세에게
불평하고 있었지만, 한 번 더 용기를 내서
아론과 함께 파라오를 찾아갔죠.**

**이제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을 보여주실 때가 된 거예요!**